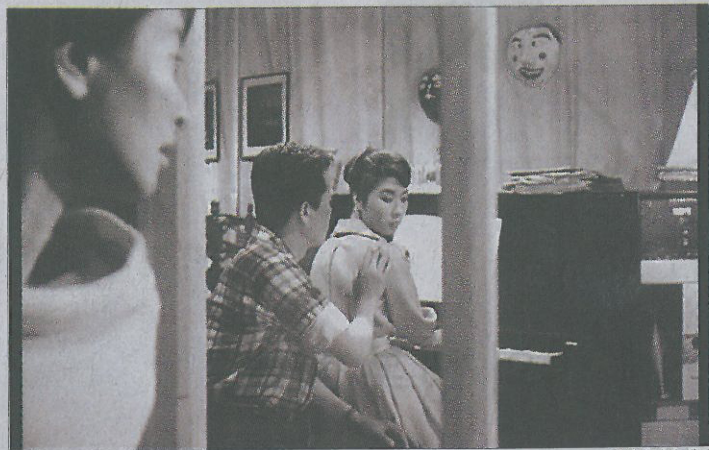


이봐, 뭘봐?



국제갤러리 제공

윤향로의 영상 작품 'W/H'의 일부인 영화 '하녀'(김기영·1960)의 한 장면.

국제갤러리, 신진작가 그룹전

줄로 묶인 채 물속에 던져진 소녀, 목이 졸리며 절규하는 여인,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벌이는 사람들, 폭발하고 부서지고 발가벗겨지는 인체... 윤향로(27) 작가의 'W/H'는 인터넷 블로그를 돌며 '움직이는 짬방(움짤)'으로 불리는 그림 파일을 수집해 무작위로 이어붙인 영상 작품이다. 영화 속 장면들, 혹은 조회수 올리기가 목표인 인터넷 게시물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이미지들. 하지만 그것들이 한데 모였을 때, 아닌 척 숨기며 위선을 떨었던 우리 안의 은밀한 폭력성과 성적 자극에 대한 탐닉이 까발려진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가 실험적 태도와 상상력으로 무장한 신진 작가

그룹전 '기울어진 각운들(The Song of Slant Rhymes)'을 열고 있다. 참여 작가는 남화연, 문영민, 윤향로, 이미연, 정은영, 차재민, 홍영인 등 7인이다. 젊은 작가들은 드로잉, 슬라이드 영상, 기계 자수, 영상, 설치 등 재료와 장르를 넘나들며 야심 차게 뒤섞는다. 예술적 '완성태'라 하긴 어렵지만, 신 과일을 한 입 베어 문 느낌 같은 짜릿한 매력이 있다.

국제갤러리는 "앞으로 매년 한 번 씩 신진 작가 그룹전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가에게는 대형 갤러리 그룹전 자체가 격려인 동시에 경력이 될 테고, 갤러리 입장에선 가능성 있는 작가를 발굴해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6월 16일 까지. (02)735-8449 이태훈 기자